Q 김일성은 왜 스탈린과 마오쩌둥을 찾아갔을까?

A 김일성은 평화통일은 믿지도 않았으며, 해방 전부터 줄곧 비평화적 무력통일 방식으로 한반도를 공산화하려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어떠한 형식이든 통일은 결코 의지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특히 미·소대립이 시작된 초기냉전 구도하의 당시 국제정세에서 무력통일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잘 훈련된 충분한 병력과 성능 좋은 무기장비 등의 군사력이 필수적 요건이었다. 또 자신의 권력을 비호해주는 국제적인 후원자와 군비지원 역시 필요충분 조건이었다. 김일성에게 그것은 곧 자신의 정치적 후견인으로서 공산권의 대부이자' 세계노동자계급의 수령 '인 스탈린의 지지와 승인을 의미했다.

후자인 스탈린의 지지와 승인은 1946년 7월 김일성이 박헌영과 함께 모스크바로 불려가 스탈린으로부터 북한정권의 최고 지도자로 낙점됨으로써 해결됐고, 또 공인됐다. 이때 김일성이 스탈린으로부터 부여받게 된 과제는" 소련군정의 협조 하에 북한의 소비에트화를 조기 실현하는 것 "이었다. 그가 해방 후 북한정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해 단시일에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까닭도 이처럼 김일성이 당시 세계공산주의운동의 영도자로 자처해온 소련 최고 지도자 스탈린과 무력을 앞세운 소련군정당국의 비호와 지도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정국이 극도로 혼란했던 남한과 달리 손쉽게 북한을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로 몰고

가면서 대남무력통일 기지로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전자인 군사력 보유와 군비확충은 북한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침략전쟁을 수행할 현대적 무기생산이 전혀 불가능했고, 또 김일성 정권 내에 사단급 이상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작전계획 수립능력과 전투수행 경험도 전무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조금 호전된 1948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북한은 소련군이 철수하면서 남겨준 각종 무기장비로 무장한 약 3만 명의 병력을 소련 군사고문단의 지원하에 조직하고 훈련도 시켜왔지만,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형편은 못됐다. 그래서 김일성의 남한 적화통일 야욕은 스탈린의 동의와 그에 따른 포괄적인 군사지원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착수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김일성의 구상은 언제든 수포로 돌아 갈 수 있는 가변적인 이상으로 남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군사적, 경제적으로 낙후된 데다 내전중인 중국은 김일성의 욕구를 충족

김일성의 대부였던 스탈린의 말 한마디는 김일성에게 곧 ‘ 법 ’ 그자체였다.

스탈린으로부터 북한의 지도자로 낙점된 직후인 1946년 가을 북조선 노동당 평안남도 열성자대회에 참석한 김일성. 오른쪽은 평남도당 위원장 김재욱

시켜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스탈린의 동의와 원조는 더욱 더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김일성이 1946년 소환된 후 1949년과 1950년 두 번이나 더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도 스탈린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끈질긴 노력의 일환이었다.

1949년 3월 초순, 광복 후 두 번째로 소련을 방문한 김일성은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두 차례에 걸쳐 스탈린과 공개, 비공개로 요담을 가졌다. 회담에서 스탈린은 북한측에 남한의 군사력과 주한미군의 현황, 북한군의 공군기 및 군사학교 보유유무, 해안방어능력 등의 군사문제와 그리고 광석의 생산유무, 대외무역 현황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주한미군이 38도선에서 대북 도발행위를 강화하고 있다고 둘러대면서 군사, 경제방면의 전문가 육성, 해안방어와 군비확충을 위한 소련의 지원을 요청했다. 스탈린은 즉석에서 김일성의 요청을 대부분 다 들어 주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남한을 무력침공 할 터이니 승낙해달라는 김일성의 요청은 들어주지 않았다. 스탈린이 거절한 이유는 당시 중국 내전의 결말이 불투명했고, 또 미국의 개입을 우려한데다 동시에 중국에서의 각종 기득권을 보장받은 얄타조약 체제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가 무력남침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전쟁을 일으킬만한 국제적 환경이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전쟁준비도 남한을 압도할 만큼 철저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1950년 1월 말, 중국공산당의 중국대륙 석권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북한의 전쟁준비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판단한 스탈린은 모스크바로부터 귀국한 후 끈질기게 스탈린과의 재면담을 간청해온 김일성의 방문요청을 수락했다. 이 시점은 스탈린이 생각을 바꿔 북한의 무력통일 의사를 승인하기로 결정한 전환점이었다. 이

것은 스탈린이 중국에서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마오쩌둥과 새로운 중 · 소동맹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중국을 대신할 새로운 전략지역을 획득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상태였고, 게다가 막 원폭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쳐 미국에 대해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던 결정이었다.

3월 하순 김일성은 또 다시 극비리에 스탈린을 찾아갔다. 회담에서 스탈린은 국제환경이 전쟁도발에 유리하게 변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김일성의 남침공격 의사에 동의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이 문제의 최종결정은 마오쩌둥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만일 중국 지도부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남침결정을 연기해야 한다면서 전쟁의 최종 결정 책임을 마오쩌둥에게 넘겼다.

소련에서 귀국한 김일성은 지체 없이 5월 중순 베이징으로 마오쩌둥을 방문했다. 남침공격이 시기상조라고 여겨온 마오쩌둥은 김일성으로

1949년 2월 소련을 방문한 김일성(좌측 첫번째)과 박헌영(우측 두번째)이 모스크바 역에서 소련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있다.

1949년 3월 소련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김일성 일행 (앞줄 오른쪽 첫째)

부터 스탈린과 김일성이 자신과 상의도 없이 이미 전쟁도발을 결정한 사실을 들었으며, 그 사실을 스탈린에게 직접 확인한 후 김일성의 남침전쟁 구상에 동의했다. 김일성은 그 자리에서 전쟁계획을 3단계로 수립했다고 언급했다. 제1단계는 군사력을 증강하고, 제2단계는 남한에 대한민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통일방안을 제의한 후, 제3단계로 남한측이 그 통일방안을 거부할 때 즉시 공격을 개시하겠다는 것이었다.

마오쩌둥은 미군의 개입과 일본군의 참전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결국 스탈린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2, 3만 명의 일본군을 파견해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며, 또한 그럴 경우 북한군은 더욱 맹렬히 전투에 임할 것이라는 김일성의 설득에 자신의 주장을 접어버렸다.

일단 동의한 이상 마오쩌둥은 차라리 적극적으로 북한을 돕겠다는 입장, 즉‘ 내키지 않는 적극적 동의 ’의 태도를 보였다. 마오쩌둥은 중국이 타이완을 ‘ 해방 하기도 전에 스탈린과 김일성이 남침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수긍하기 힘든 결정이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그들이 이미 침공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이상 그것은 중국과 북한의 양국 공동과제가 됐으므로 도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미군이 참전할 경우에도 병력을 파견하여 북한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으로부터 남침전쟁에 관한 지지와 지원을 약속받고 평양으로 돌아온 김일성에게 남은 것은 그 같은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장받으면서 전쟁준비를 점검하고 그에 박차를 가하는 일이었다.

생각해 봅시다!!

1. 스탈린이 처음에 김일성의 남침승인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까닭은?
2. 스탈린의 남침승인 사실을 확인한 마오쩌둥의 태도는 어땠는가?